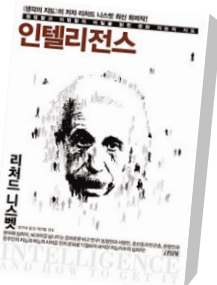


현대불교 독자가 읽은 이 책

인텔리전스



누구나 IQ 테스트를 해봤을 것이다. 지능지수에 대해 얘기한 기억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IQ(intelligence quotient)는 어떻게 형성되고 결정되는가? 유전적인 요인 때문인가. 환경 요인 때문인가? IQ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인텔리전스>가 출간됐다. <생각의 지도>로 국내에도 알려진 미국 미시간주립대 심리학과 교수 리처드 니스벳(Richard E. Nisbett)의 최신작이다.

IQ는 프랑스의 비네가 학령기 아동의 정신연령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했다. 여기서 지능은 정신연령을 실제연령으로 나눈 값이다. 10세 아동이 12세 아동 수준으로 과업을 수행할 경우 이 아동의 IQ는 120이다. 만약 10세 아동이 8세 아동 수준으로 과업을 수행했다면 이 아동의 IQ

반적이다. 오늘 날 많은 과학자들은 IQ 유전율이 훨씬 낮다고 생각한다. 환경결정론을 주장하는 편에서는 유전율을 50%로 추산한다. 유전율은 조사집단에 따라 상당히 달라진다. 대표적으로 입양아 연구사례를 제시한다. 어떤 사람이 중상계층 환경에서 양육하면 하류층에서 양육하는 것에 비해 IQ를 12~18점 높일 수 있다. 이런 사실에서 환경이 지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IQ 유전 아닌 환경... 노력하면 높아져

는 80이다. 현대의 IQ 검사에서는 해당 연령의 평균인 분포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수치가 소속 연령집단의 평균보다 1표준편차 높다면 이 사람의 IQ는 115가 된다. 본래 IQ 검사는 학업 성취를 예측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나, 얼마 후 사람들이 지능이 높고 여기는 것과 비슷한 무언가를 측정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사립들에게 다른 이의 지능을 평가하라고 한 결과와 IQ가 비슷했던 것이다. 지능이 높다는 평가를 받은 사람은 IQ 검사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리처드 니스벳은 이 책에서 동양과 서양의 사고방식 차이를 실험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대만 어린이들의 수학실력을 증거로 내놓고, 지적성취 능력에 대한 동서양의 서로 다른 인식을 분석하고 있다. 아시아인은 지적성취는 노력에 달려 있다고 믿는 반면 서양인은 타고난 능력이나 교사의 자질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또 아시아인은 자기 향상에 도움이 되는 비판을 수용하는데 익숙하지만 서양인은 불쾌하게 여긴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아시아인 가족은 학업을 중요하게 여기며 미국인 가족에 비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고, 성공적으로 자녀의 학업을 돕는다고 니스벳 교수는 강조한다. 문화적 전통과 교육에 대한 열정 여부가 IQ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특히 IQ는 나이에 상관없이 노력만 하면 평생 좋아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인텔리전스 리처드 니스벳 저 | 김영사 펴냄 | 1만5000원

진경화 / 어학공부와 독서가 취미인 40대 주부다.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교생 2명을 키우고 있는 우리 시대 학부모다. 부처님처럼 명상 수행을 통해 평화와 진리의 세계에 살아가고픈 마음이 한가지다.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게

리빙 전문 이나래 기자, '정위 스님의 가벼운 밥상'

"커피국수는 양념장 안 넣고 먹지요?" "그렇지요, 커피국수는 정말 간단합니다. 사발에 커피를 담고 국수 올리고 오이 얹으면 끝이지요. 오이는 최대한 곱게 채 쳐요." "스님, 이 꽃은 어떻게 꽃으신 거예요? 멋스러워요"

"꽃시장 갔다가 바닥에 이파리 하나 떨어져 있기에 주워 집시에 물 붓고 그냥 얹은 거예요."

리빙 전문가인 이나래 기자가 28개월 동안 맛과 멋을 아는 정위 스님의 뒤를 쫓으며 배운 것을 <정위 스님의 가벼운 밥상>으로 펴냈다.

편안한 자락 아담하고 현대적인 사찰 길 상사에 기거해 온 정위 스님. 주변인들은 스님의 격 높은 솜씨에 감탄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 세상에 드러나지 않던 정위 스님이 어느 날 이나래 기자를 만나 매화비빔밥 한 사발 대접했다가 미감을 들고고 말했다.

저자가 말하는 센스, 아낌과 배려는 스님이 만들어내는 음식과 살림살이의 곳곳에서 발견된다.

길상사의 히트 메뉴인 '채소떡국'은 육식을 즐기는 사람들도 즐길 수 있는 음식이다. 스님은 고기 국물로 떡국을 할 수 없어 마땅한 재료를 찾다가 미나리, 유부, 버섯을 넣는 등 다년 연구 끝에 고기국물로 맛을 낸 떡국보다 맛도, 몸에도 좋은 떡국을 개발했다.

"매화꽃 비빔밥"도 그 맛이 일품. 스님이 매화꽃을 흠뻑 비벼준 비빔밥의 특색 터지는 매화 향기에 흠뻑 취해 저자는 밥을 남기면 어쩌나 하는 고민도 금세 잊었다고.

정위 스님은 생김 대로 살려 꽃는 자연주의 꽃꽂이를 지향한다. 꽃 시장에 꽃 사러 갔다가 밭에 채어 주워 오기도 하고, 그냥 두면 꺾어질 가지, 바람에 떨어질 꽃을 앞마당에서 주워다가 대강 어울릴 만한 자리에 찾아 두는 식이다.

최근의 트렌드는 에코(ECO)다. 진심을 잃고 보여주기 위한 예고가 판을 치는 요즘, 저자는 스님의 일상을 구경하면서 몸에 밴 친환경 마인드에 잔잔한 감동을 받았다.

정위 스님은 물건하나 허투루 써 버리는 일이 없다. 스님의 물건들은 평균 15년은 된 것들이다. 안경은 15년, 냄비는 25년, 가방은 8년, 신발은 10년 됐다. 신기하게도 그렇

게 오래 쓴 물건들이 모두 멀끔하다. 이런 몸에 배인 습관은 어디서 오는 건지 묻는 질문에 스님은 "생명이 있건 없건 저에게 온 것에 인격을 부여한다"고 답했다. 그동안 스님이 이 빠진 꽃병도, 깨진 흠을 살려 나뭇가지를 꽂고, 낡은 십자수 옷보는 잘라서 액자를 만드는 등 정성을 들였던 것도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음식도 마찬가지다. 스님은 찬으로 올렸다 남은 김치들은 모아뒀다가 볶아 먹거나 찌개를 끓인다. 마른 표고로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도 보통은 기둥을 떼어 내버리는데 스님은 기둥만 모아뒀다가 장아찌를 만들었다. 살림의 지혜이자 환경을 대접하는 정성이다.

스님은 "길상사를 지을 때 우연히 책을 보다 '검소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儉而不陋 華而不侈)'라는 구절을 가슴깊이 새겼다"고 말했다. <정위 스님의 가벼운 밥상>에는 스님이 짚을 꾸미며 삼은 원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정위 스님의 가벼운 밥상 | 정위·이나래 저 | 중앙m&b 펴냄 | 1만3800원 이나래 기자



신라 왕자가 中 오백나한이 되기까지

'정중무상평전' 무상 선사의 위대한 발자취 쫓아

여동생이 칼로 얼굴에 해를 입히면서까지 스스로 머리를 깎아 승려가 되는 모습에 부끄러워 출가를 결심한 무상 선사가 중국의 오백나한의 반열에 올랐다는 사실은 2001년이 돼서야 알려진 사실이다.

<정중무상평전(淨衆無相評傳)>은 무상(無相·684~762)의 위대한 자취를 저자 최석환이 10년간 발로 쫓아 복원한 책이다.

저자는 1993년 <정중무상선사>를 출간하며 무상과 속명적 만남을 시작했다. 그 뒤 무상 선사를 화두로 그 뒤를 따르며, 2001년 8월 초산성 일대를 조사했다. 저자는 특히 중국 오백나한 중 무상 선사가 455번째에 올랐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연구에 사명감을 갖게 됐다고 밝힌다.

1200년간의 망각을 딛고 세상 밖으로 나온 무상 선사는 신라의 제 6세 왕자로 태어났다. 출가 후 당에 건너간 무상 선사는 장안에서 당 현종에 의해 선경사에 머물며 도를 닦았다. 이후 쓰촨으로 들어가 당화상 처적 선사(處寂·658~734)에게 엄지 손가락을 태워 바침으로써 그의 밑에서 수행했다.

무상 선사는 처적 선사로부터 정중종의 법맥과 달마의 목면

가사를 이어받았다. 선사는 당현종의 칙명으로 대사사를 건립해 주지가 됐고 이후 455번째 오백나한으로 모셔졌다.

그는 선차지법(禪茶之法)의 시조이고 한국선종의 첫 줄기인 구산선문(九山禪門)의 원조였다. 마조에게 선법을 계승해 중국 선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티베트에 불교를 전한 인물이기도 하다.

<정중무상평전>에는 이러한 무상 선사의 선철학과 사상의 정수가 담겨 있다.

<불교춘추><선문화><차의 세계>의 발행인이기도 한 저자는 "잘못 쓰여진 선종의 법맥을 바로잡고 황금부처의 현몽으로 태어난 무상 선사를 오늘날에 되살려 냄으로써 아직까지도 중생의 가슴 속에 살아 있는 무상의 고귀한 정신을 후대에 전하는 교량이 돼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중무상평전 | 최석환 저 | 차의 세계 펴냄 | 2만8000원 이나래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	법정	문학의 숲
2	법정 스님 순결	변재주	큰나무
3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4	누구 없는가	법전	김영사
5	선객	법광	한결을 더
6	이 세상에 당신과 함께 있어 기쁩니다	성진	마음의 숲
7	부처되는 공부	우학	돌
8	나는 걷는다 붓다와 함께	창진	휴
9	부처님의 생애	편찬위	조계종출판사
10	열두 달 절집 밥상	대만	웅진리빙하우스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3672-7181~5

**GOLD Bulgama**

**황금빛 찹쌀로 건강100세!**

"우리 몸을 따뜻하게 다스리는 황금빛 찹쌀" 불가마 골드의 온열요법은 우리 가정에 쉽고 편리한 찹쌀 문화를 선사합니다.

- 불가마 골드는 5분 충전으로 2~3시간의 무선온열 펌·찜질 제원·
- 삼미준마이오 토르마린, 비정산 등 배합으로 원적외선 및 음이온 발생·
- 금·도금처리, 온열요법 및 파동요법, 유희와 중화 기능·

본 제품에 제공되는 목대 및 온열주머니를 활용하여 위와 같이 편리하게 찜질하십시오.

(주)동성행복 | 심전 대리점 송정미  
011-9865-9401/070-7523-9401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2년전통  
조상의 얼과 20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함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분  
가 루 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죽염 230g 55,000원

2번 구분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기본 매봉이 2500원 (5만원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시음품 (후대용 알갱이 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ij.co.kr

영봉스님과 함께 '히말라야 행선 트레킹' 나를 찾아가는

세계 최고봉 16차 가운데 10좌를 한 눈에 볼 있는 곳 히말라야 트레킹의 베스트 코스 피케이봉(4200m)을 오르는 동안 누구나 수행자가 되고 누구나 깨달음의 순간을 체험하게 됩니다.

네팔 카트만두에 영봉스님이 개설하여 운영 중인 '세종 한국문화 언어교육원'과 한국내 영봉스님 후원회 '히말라야의 꿈'이 공동 진행하는 제 2차 영봉스님과 함께 나를 찾아가는 히말라야 행선 트레킹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참 안내**

▲일 시 : 2010년 4월 9일(금) ~ 23일(15일)

▲코스 : 인천공항 대한항공 직항 → 카트만두 → 지리 → 시발라야 → 반달 → 마일리 → 불블레 → 베이스캠프 → 피케이봉 정상 → 반베시 → 반달 → 시발라야(의료봉사) → 지리 → 카트만두(시내관광 등) → 인천공항

▲인 원 : 30명 선착순.

▲참가비 : 287만원 (비자비 5만원 별도)

▲입금계좌 : 국민은행 718202-01-142493 (예금주 : 임연태)

▲접수마감 : 4월 2일(금)

▲사전설명회 : 4월 3일(토) 오후 4시 (정소-개별공지)

▲문의 : 임연태(히말라야의 꿈 사무총장) 017-236-5769

**공동 주최**

▲세종 한국문화 언어교육원 / 히말라야의 꿈

영봉(예종)스님은  
1990년 부처님오신날 세계최초 성지자 신분으로 히말라야 메라팍(6750m)을 등정해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이후 20여 년째 안나푸르나, 킬리만자로 등 세계 고산등정을 계속 하고 있다. 현재는 네팔 카트만두에서 '세종한국문화언어교육원'을 설립 현지 가이드 셀파 포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